



문 9. 외래어 표기 규정에 모두 맞는 것은?

- ① 브리쉬, 케익                      ② 카페트, 파리
- ③ 초콜릿, 세퍼드                  ④ 슈퍼마켓, 서비스

문 10. 다음 글과 뜻이 통하는 속담은?

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 辟은譬와 같다)  
- 「中庸」에서 -

- ①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송산이라.
- ②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 ③ 급하면 부처 다리를 안는다.
- ④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문 11. 다음 시의 '나'를 형상화한 표현이 아닌 것은?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종(忍從)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후의 ㉡갈방에서.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약기가 된다.

떡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이 된다.

- 박남수, 「종소리」 -

- ① ㉠                                      ② ㉡
- ③ ㉢                                      ④ ㉣

문 12.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이 별이는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제약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이것이 법률 시스템이다. 법률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다양한 하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개인들은 마음껏 남과 경쟁해도 된다. 다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다. 나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남을 죽이거나 팔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속이거나, 그 밖에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다른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는 한 그렇다. 경쟁의 승자는 패자보다 더 많은 자원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 ① 민주공화국에서 경쟁의 승자는 패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 ② 민주공화국에는 경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약하는 법률 시스템이 있다.
- ③ 민주공화국에서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 개인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한다.
- ④ 민주공화국은 개인들에게 경쟁의 자유를 보장한다.

문 13. 다음 글의 논리적 오류와 같은 종류의 오류가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 ①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화합한 사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미확인 비행 물체(UFO)가 없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인 비행 물체는 존재한다.
- ③ 지금 서른 분 가운데 열 분이 손을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모두 제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④ A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고, B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 14. 다음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조선 시대에 금속활자는 희귀한 물건이었고, 오로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조선 전기는 물론이고 조선 후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민간에도 금속활자가 몇 종 있었지만 극소수 양반가의 소유였을 뿐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금속활자는 온전히 국가의 소유였다. 왜 국가가 금속활자를 독점했던 것일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고안에는 상업적 동기가 작용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라틴어 문법 서적 등 인쇄물에 대한 인간의 수요가 많았고, 그 수요는 주로 목판 인쇄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구텐베르크는 인쇄물의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속활자 인쇄술을 고안했던 것이다. 즉 서양의 인쇄술은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의 필요에 의해 민간에서 제작되었다. 반면 조선의 금속활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어떻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조선에서는 왜 국가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독점했을까? 여기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음 문자인 '라틴 자모'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조선조의 금속활자는 한자 활자가 대부분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해 한문으로 쓰인 책을 어떤 장에도 없이 인쇄하자면 한자 수만곱이나 많은 활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자주 쓰이는 글자는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니, 실제 필요한 한자 활자는 한자 전체의 수에 몇을 곱해야 할 것이다.

금속활자는 결코 대량 인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목판은 일단 새겨지지만 하면 수요가 많은 책을 복제하는 데 유리했지만, 새로운 수요에 재빨리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너무나 더디었다. 또한 책의 중 수만곱 별도의 목판을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속활자는 새로운 수요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다시 말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조선 금속활자의 존재 의의였다.

- ① 문자의 성격 차이가 금속활자 인쇄술의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
- ② 일반적으로 조선의 목판 인쇄는 새로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 ③ 서양과 조선에서의 금속활자 인쇄는 서적의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을 목적으로 하였다.
- ④ 서양에서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속활자로 인쇄하였지만, 조선에서는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